



▲제 17회 불교미술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한주영씨의 목조작 '아미타삼존불' (200cm x 200cm). 불상에는 은행나무를, 대좌는 백송을 사용했다. 섬세하고 치밀한 조각솜씨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상을 받은 오진균씨의 회화 '깨달음' (144cm x 192cm). 크레파스와 아크릴을 사용해 스크래치(긁기)기법으로 깨달음을 상징화했다.

### 17회 불미전 대상작없이 금상 2편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에서 한주영씨(40·부산 금강산교조각연구소)의 조각 '아미타삼존불'과 오진균씨(26·동국대 대학원)의 회화 '깨달음'이 금상(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차지했다. 24일 발표된 불미전 심사결과와 입상작 발표에 따르면 대상은 해당작이 없이 은상에는 조각 '심우도(최경교)' 탕화 '일백사위신중도(김성

### 한주영씨 '아미타삼존불' 오진균씨 '깨달음'

입상작 10월14~27일 공평아트센터 전시

회) 서예 '상수불화가(이종선)' 이, 동상에는 탕화 '만불담(김현창)' 조각 '달마의 전설(김평기)' 회화 '치성(김민정)' 서예 '사명당시(이해숙)' 등이 각각 차지했다.

금상으로 선정된 조각 '아미타삼존불'은 전체적으로 섬세한 부분까지 세밀히 조각해 조형미를 잘 갖추었다는 점에서, 회화 '깨달음'은 창작성이 돋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예 △사진 부문이 제외된 이번 불미전에는 출품작이 대폭 줄어 △탕화 △조각 △회화 △서

예 등 4부문에 모두 163점(지나해 269점)이 응모했고 이중 94점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앞으로 출품하고자 하는 작가들은 한정된 기능에 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보다 작품구상에서부터 창의성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상작들은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전시되며, 입상작들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14일 오후 5시 공평아트센터에서 갖는다. 이경숙 기자 (gsllee@buddhopia.com)

### 불미전 금상수상자 인터뷰

조각부문 한주영씨

#### 2년전부터 작품준비

"'불미전'에 처음으로 출품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모두 부처님의 기피인 듯 싶습니다."

한주영씨는 20여년이 넘게 불교조각을 해온 불모. 2년전부터 은행나무와 백송을 골라 조각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는 한씨는 조각이 잘 안될 때는 가까운 절에 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다스려왔다고. 한씨는 이번 수상을 "더 훌륭한 불모가 되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한다.



회화부문 오진균씨

#### "탐진치 정화 했으면"

오진균씨는 크레파스와 아크릴을 사용하여 스크래치기법으로 현실의 갖가지 유희와 이에 따르는 고통을 묘사하고 아랫부분에 부처님과 연꽃을 배치, 현실세계에서도 청정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불미전 첫 출품작으로 금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씨는 "탐진치로 일러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흔히 담긴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와 지하문이 그대로 무대가 된 오페라 '원효'의 한 장면.

### 오페라 '원효' 관람기

#### 불국사 배경 환상적 무대 1300년전 신라의 사랑 재현 6천여 관객들 감동의 시간 상징적 아리아 보완했으면

민족의 영원한 스승 원효스님과 요석공주가 1천3백년 세월을 거슬러 고향 경주로 돌아왔다. 18일부터 3일간 불국사 대웅전 앞 마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원효'는 고색창연한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와 지하문이 무대로 활용되고 주변 계 데 서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소품으로 사용되는 등 불국사는 그 자체로 훌륭한 공연무대가 되었다. 특수 조명을 받은 울긋불긋한 단청과 기하학적 무늬의 석축이 무대가 된 배경은 오색 연등의 물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다.

흔신을 다한 연주자들의 화음은 깊어가는 산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6천여 관객들은 1천3백년만에 환상적인 원효스님의 무대행과 요석공주의 애절함에 일희일비했다. 원효스님이 요석공주의 감성을 뿌리치고 청운교 백운교를 걸어 중생구제의 길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은 몽롱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오페라가 보편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야외무대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무대는 다소 모험적이기까지 하였으나 주최측과 출연진들이 호흡을 맞춰 기대 이상의 감동을 이끌어냈다. 가장 신선하다운 장소인 불국사에서 불교 소재의 오페라가 열렸다는 점은 불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고 타종교인들도 "불국사를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무대와 질

서정연한 관람태도를 보고 불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 그러나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야외무대는 웅장한 무대와 화려한 의상 그리고 현장감있는 음향을 특징으로 한다. 장소가 협소했던 탓인지 본래 계획했던 이흥식 무대가 취소되고 하나의 무대를 사용하다보니 막이 바뀔 때마다 관객이 보는 앞에서 소품을 바꾸어야 했고, 웅장한 신라왕궁 등은 거의 표현해 낼 수 없었다. 따라서 관객들은 다소 시각적인 지루함을 감수해야 했다. 또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일환으로 열린 만큼 외국인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 자막이나 영문 번역본을 나눠 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베르디의 '아이디나 푸치니의 '투란도트' 등에서와 같은 대 표할만한 아리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성악가는 "오페라 '원효'가 세계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불멸의 아리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몇가지 부분만 보완한다면 오페라 '원효'는 세계로 진출해도 손색이 없을 듯 싶다. 이번 공연은 불교가 서양의 종합예술인 오페라의 소재로도 얼마든지 흥미로울 수 있을과, 산사가 문화 공연의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자리였다. (yhlee@buddhopia.com)

## "찬불가 작사 25년 대중에 회향"

반영규씨 교회기쁨음악회...10월 16일 문예회관

"찬불가로 인연 맺은 도반들과 후배들이 이렇게 음악회를 열어 준다고 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이 스며 있는 좋은 가사를 쓰며 여생을 회향할까 합니다."

'붓다의 메아리' '무상계' 등 널리 불리는 찬불가의 작사자 반영규선생(불교문서포교회 대표)의 교회회를 맞아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음악회가 10월 16일 오후 7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부처를 향한 어느 시인의 노래'라 이야기 그리고 서원'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음악회는 평소 반영규선생의 사(詞)에 곡을 붙인 최영철 이찬우 조영근 김희경 정옥녀씨 등의 지휘로 진행된다. '개경계(김희경 곡)' '출가일의 노래(정부기 곡)' '보리이루리(박범훈 곡)' '자비의 나라(김희경 곡)' '나의 서원(김동환 곡)' '붓

다의 메아리(서창업 곡)' 등 반영규선생 가사의 찬불가 19곡이 공연되어 선생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특히 김성녀 김영임 오송희씨 등 국악인과 성악가들도 동참하며 중앙불교합창단 청통사 길너씨 등의 지휘로 진행된다. '개경계(김희경 곡)' '출가일의 노래(정부기 곡)' '보리이루리(박범훈 곡)' '자비의 나라(김희경 곡)' '나의 서원(김동환 곡)' '붓

노래(정부기 곡) '붓다에 핀 꽃'(김희경 곡) '사바의 노래(김동환 곡)' 등은 불교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대작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소재자 '자비의 소리'로 독자 포교의 선구자로 활약해온 반영규선생은 칠순인 현재도 2개의 오페라와 1개의 뮤지컬 가사쓰기에 몰두하고 있는 등 불교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 대구불교방송예술단 창단

대구불교방송(사장 법타스님)이 국악합주단, 교향악단, 합창단 등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창단. 10월13일에 창단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악합주단 30명, 교향악단 40명, 합창단 80명 등 총 150여명 규모로 조직되는 이번 예술단은 불교방송 열린음악회를 비롯 사찰사회 연주회, 해외교류 음악회 등 불교 음악 전파를 위한 발을 포교에 나선다. 대구불교방송예술단은 9월말 각 부문별 오디션을 거쳐 11월12일 대규모 창단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opia.com)

### 왕궁리유적등 3건 익산시, 사적지정 고시

문화관광부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왕궁리 유적, 부안군의 백산성, 전남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식묘군 등 3건을 17일 사적으로 지정 고시했다.

왕궁리 유적에는 국보 제2백85호인 왕궁리 5층석탑이 있으며 86년 이후 실시된 발굴 조사 결과 5층석탑과 관련된 금당지와 강당지 등

### 문화재 소식

사찰의 배치를 알 수 있는 건물지 유구와 유물, 사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 약 1.5km의 석성이 확인됐다. 74년 9월 27일 전북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왕궁리 유적은 사적 제4백5호인 제석사지와 함께 백제 말기(7세기 무왕대)의 익산 천도설을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 전국 사찰 심야전력기기

시공전문업체 金剛機電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를 일반 가용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전국 각지 여러사찰에 심야전력기기를 보급, 사후관리해온 저희 금강기전은 전년을 이어갈 사찰의 난방공사에 적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니나현상"으로 길고 좁다는 울거울 山寺의 겨울난방준비는 金剛機電으로...

▶ 심야전기보일러 : 기존 기온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를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온수기 : 미리 저정온 온수를 사용함으로써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온돌 :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등기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온풍기 :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므로 마루방담 난방에 적합합니다.

430-043 본사: 경기도 안양시 석수3동 774-5 전화: 0343)468-7200(대) 영업부: 0343)445-6090 FAX: 0343)445-3370

■ 문의전화 ■ 0343)468-7200(대)

### 버섯 좋은것 다아시죠!

(암 및 당뇨, 성인병 예방 특효)

동충하초 : 누에동충하초:중량100g 값:150,000(1개월분)

상황버섯 : 상황:중량340g(170g x 2개) 값:135,000원(40일분)

아가리쿠스 : 중량150g 값:105,000원(1개월분)

"성험찬 숙리산하에서 재배한 버섯"

(주)동해농·축·수산 건강사업부 (건영백화점내)

■ 주문전화(배달 및 통신판매중) 서울 02)926-6981 철원 0353)458-4534 제주 064)752-1611 휴대폰 011)262-6981

###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게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가격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 간

구름을 바라보는 물 :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삼천배 삼천부처님 :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판체'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경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墨(그림, 龍(지그) (수액파 처단) 특별보사!

특 전 : 전수중 임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신목가협회 초대 직가로 추천함.

한국 수액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 ☎ (02)242-0331, 242-0255 (야)216-0307

● 주문 신청방법 :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